

全國 42個都市에 運營



金 相 好

(碧山그룹 아이디어開發研究所長)

日本の發明活動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實際로 이곳에 와서 여러가지로 見聞해 보니 생각 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는 印象을 받았다.

이곳 發明學會를 訪問하여 學會 活動을 이모저모로 研修하던차 마침 이번 日曜日에 横浜市에서 열리는 日曜發明學校를 參觀하게 되었다.

發明學會 藤田專務의 주선으로 横浜에 電話로 連絡하였더니 그곳 事務局長은 韓國서 처음 오신 분이니 場所를 明確히 說明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直接 電話通話를 하도록 하여 親切하게도 朝日會館까지 오는 길을 仔細하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東京에서 올 경우 東京驛에서 KEIHIN 線을 타고 橫濱驛에서 갈아타는데 3번홈으로 와서 KANNAI驛까지 2정거장 더와야 한다. 驛에는 北門과 南門이 있는데 南門쪽으로 나와서 곧바로 50미터를 걸으면 市廳이 있고 거기서……”

筆者는 이렇게 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데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같으면 “驛에서 택시타고 오면 몇분정도 걸릴 것이다”는 식의 안내로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튿날 아침 필자는 일러준 대로 전차를 타고 일러준 場所에 無難히 到着할 수 있었다. 多幸히도 建物屋上에 降り서도 알 수 있도록 “마이크”가 붙어 있어서 여간 찾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도 建物 찾을때 이름만 가지고 찾기 보다는 建物の 모양과 색깔, 그리고 표지같은 것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美國에서는 建物

番號가 있어서 찾기가 좋다고 하더구만서도.

正刻 午後 1시에 시작되었는데 자리가 꽉 메울만큼 사람이 모였다. 案内者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案内해 주는 것도 매우 印象이 좋았다. 들어가서 둘러보니 50餘名이 될 즉한데 白髮이 성성한 老人도 더러 보이고 婦人 青年들 그리고 中高生들도 몇 명 눈에 띄었다. 會員이 아닌 사람은 入場料 500엔을 支拂하는데 그날의 行事內容이 담긴 팜플렛도 配布해 주었다. 會長의 인사말이 끝나자 오늘의 發明發表者가 順序에 따라 앞에 나와서 自己의 考案品에 대해 10分間씩 說明을 하는 것이었다. 內容은 發明의 動機, 構造, 效果 등을 簡單하게 說明하고는 거기 모인 聽衆들로부터 意見과 質問을 받는 것이었는데 所要時間은 10분이었고 時間을 超過하게 되면 打鐘을 하게 되어 있어 3분이 더 지나면 無條件 끝내게 되어 있었다.

물론 나중에 個別的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別問題는 없는 것 같았고 時間의 統制가 잘 되기 때문에 計劃대로 進行이 可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發表者의 說明에 대해서 聽衆들은 各者의 專門知識과 아이디어를 살려서 未洽한 點을 指摘해 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말해 줌으로써 發表者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補充點을 깨닫게 해 주기도 했다.

例를 들어서 材料는 이런 것으로 하면 原價가 半 以下로 줄어 들 것이다. 또 한 개 보다는 두 개 이상으로 하고 그것이 玩具인 경우에는 움직이는 것으로 하여 사람이 直接 作動시키도록 한다

면 더욱 興味를 끌 수 있을 것이다. 等等의 助言을 하기도 하였고 尤모어性과 展示效果를 크게 하기 위한 方法도 論議되었다.

發明品이란 자칫하면 自己 혼자만 생각하므로 해서 그것이 最高인양 速斷해 버리기 쉬운 法인데 實際로 만들어 놓고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缺點이 나타나고 效果가 意外로 적어서 關心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第三者의 指摘이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發表者나 聽衆이 다같이 매우 진지하고 熱意에 넘쳐 있어서 雰圍氣는 펴 밝고 興味로웠다. 7名の 發表가 끝나자 幹事長이 투표함을 돌려서 그곳에 參席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發表者中 누구의 發表內容이 가장 흥미로웠는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入賞者가 決定되어 發表되었고 1等賞에는 1萬圓, 2等賞에는 5千圓 그리고 3等賞에는 2千圓이 각각 授與되었다.

다음 行事로 停年退職한 大學教授의 “電氣物理學의 基礎”란 題目의 特講이 있었다. 事務長의 說明에 依하면 이 老教授는 이와 같은 貴重한 모임에 自己가 特講을 할 수 있게된 것은 대단히 榮光스러운 일이므로 無料로 奉仕하겠다고 自願하였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또한 누구 한사람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모두들 熱心히 筆記하면서 聽講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和氣 넘치는 가운데 日曜發明學校는 幕을 내렸다. 한가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이 講義室안에 여러가지 發明에 대한 책들이 備置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會員들이 누구나 自由로 빌려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實際로는 現在 備置되어 있는 것보다 책이 더 많다는 것이었다.

閉講後 필자는 이곳 關係者들과 잠시 앉아서

談笑하는 가운데 몇가지 事實을 더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들의 發明考案內容을 發明學會에서는 定期的으로 “아이디어 메뉴—”라고 하는 팜플릿을 통해서 發刊해 준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여러 企業體에서는 이 팜플릿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直接 採用해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너도 나도 아이디어를 開發하여 發表하고 그것이 곧 個人的 所得과 權利로 連結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發明學會는 이들 아이디어 맨들이 自己의 考案品을 손쉽게 出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所謂 “特許管理士”라고 하는 資格을 부여하여 이들이 各職場에서 職場內의 提案中 出願할 만한 것을 골라서 出願節次를 알아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特許權을 保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現在 全國 42個 都市에 日曜發明學校가 設置되어 月 1回 運營되고 있고 그規模가 큰 곳은 數百名이 된다고 한다.

오늘날 日本이 끊임 없이 新製品을 開發하여 世界市場을 석권하고 있고 品質面에서도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러한 國民全體의 啓蒙과 參與가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可能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現實과 日本의 現況을 比較해 보고 우리도 하루빨리 汎國民的으로 아이디어 開發思想이 普及되고 또 各者가 흥미와 熱意를 가지고 이에 參與할 수 있는 制度的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切實히 느꼈다. 우리에게 는 남의 나라처럼 地下資源이 豊富한 것도 아니며 오직 熱과 誠意로서 땀 흘려 일하며 또한 우리들의 優秀한 頭腦를 開發함으로써 國際競爭力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힘을 培養할 수 있다는 것을 確信하게 되었다.

필자가 돌아가면 이런 觀點에서 國家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期待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어려운 與件下에서나마 使命感을 가지고 邁進하여 줄것을 呼訴하면서 이만 줄이고자 한다.